

부활 김도영 '막강 화력' 장전... "17년 만에 8강 가자"

WBC 한국 대표팀, 오늘 오후 7시 체코와 첫경기

체코, 일본, 대만, 호주와 조별리그...조 2위안에 들어야 8강 2009년 준우승 영광 다시 한번, '비행기 세리머니'로 자신감

전 세계 야구 축제 월드베이스클래식(WBC)이 5일 미국, 일본, 푸에르토리코에서 조별리그의 막을 올린다.

올해 WBC 본선에는 20개 나라가 출전,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8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한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C조 조별리그에서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경쟁한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8강에 진출한다.

조별리그 A조 경기는 푸에르토리코에서, B조와 D조 경기는 미국에서 진행된다. A, B, D조 일정은 현지 날짜 6일에 첫 경기를 시작한다.

A조에 푸에르토리코, 쿠바, 캐나다, 파나마, 콜롬비아, 핀란드, 미국,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 브라질이 B조에서 경쟁한다.

우리나라와 조금 더 관련이 있는 D조에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니카라과가 들어 있다.

한국은 WBC가 창설된 2006년 3위, 2회 대회인 2009년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냈으나 이후 열린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했다.

아시아게임에서는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2023년 항저우까지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우리나라는 그러나 2021년 도쿄 올림픽 6개 나라 중 4위, 2024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조별리그 탈락 등 국제 대회에서 좀처럼 성적을 내지 못했다.

대표팀 주장을 맡은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지난 1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제가 성인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는 '참사의 주역'만 된 것 같다"며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컸던 선배들의 영광을 이번 대회부터 다시 일으키고 싶다"고 각오를 다진 이유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WBC 8강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은 지난해 1월 류지현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며 이번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왔다.

소속팀의 스프링캠프가 시작하기도 전인 올해 1월 사이판 훈련을 시작으로 2월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손발을 맞추며 전력을 다졌다.

이정후와 김해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뛰는 선수들도 합류했고, 한국계 선수들도 3명이나 엔트리에 포함됐다.

2023년 대회 때는 한국계 선수가 토미 현수에 드면(다저스) 1명만 출전했다.

최근 평가전에서 김도영(KIA 타이거즈), 안현민(kt wiz) 등 2003년생 젊은 타자들의 파괴력이 돋보인 것도 한국의 8강 진출에 청신호다.

다만 문동주(한화 이글스), 원태인(삼성 라이온즈) 등 주축 투수들이 부상으로 빠졌고, 마무리를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 한국계 라일리 오브리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부상 결정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빅 리거' 김하성(애들랜트 브레이브스)과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부상으로 인한 불참도 마찬가지다.

같은 조에서 경쟁할 팀들의 전력 역시 만만치 않다.

2006년과 2009년, 2023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일본은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이상 다저스) 등 쟁쟁한 '월드 스타'들을 앞세워 이번 대회에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꼽힌다.

대만 역시 2024년 프리미어12에서 우승했고, 주요 국제대회마다 우리나라와 치열하게 맞붙은 야구 강국이다.

WBSC 야구 세계랭킹을 보면 일본과 대만이



월드베이스클래식(WBC)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일본 도쿄돔에서 한국 대표팀 김도영과 세이 위트컴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1, 2위고 미국이 3위, 한국은 4위다.

한국은 5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C조 최약체로 평가되는 체코와 1차전을 치르고, 7일 같은 시간 일본과 2차전을 벌인다.

8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만전은 8일 정오에 시작한다.

7일 야간 경기 후 8일 곧바로 낮 경기로 대만을 상대하는 일정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조 2위 안에 들면 8강이 열리는 미국으로 이동한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평가전에서 안타를 치고 '비행기 세리머니'를 한 이유가 바로 '미국까지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8강은 휴스턴과 마이애미에서 나뉘어 열리며 한국이 속한 C조는 8강부터 모든 일정을 마이애미에서 치른다. /연합뉴스

2026 월드베이스클래식(WBC) 경기 조편성 대진

A조	B조	C조	D조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멕시코, 미국	호주, 대만, 체코, 일본, 한국	도미니카공화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3월 14일 오전 8시 30분 (미국 마이애미) A조 2위, B조 1위

3월 14일 오전 10시 (미국 휴스턴) B조 2위, A조 1위

3월 15일 오전 5시 (미국 휴스턴) C조 2위, D조 1위

3월 15일 오전 11시 (미국 마이애미) D조 2위, C조 1위

3월 16일 오전 10시 (미국 마이애미) 준결승 1, 8강전 승리팀

3월 17일 오전 10시 (미국 마이애미) 준결승 2, 8강전 승리팀

3월 18일 오전 10시 (미국 마이애미) 결승, 준결승 1 승리팀, 준결승 2 승리팀

한국 조별리그 일정: 3월 5일 오후 7시 체코, 한국; 3월 7일 오후 7시 일본; 3월 8일 오후 12시 대만, 한국; 3월 9일 오후 7시 한국, 호주



광주FC,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관람 만족도 '↑'

광주월드컵경기장 F&B 시설 전면 개편...고정형 푸드부스·편의점 운영

프로축구 광주FC가 팬들의 관람 만족도 제고를 위해 F&B 시설 전면 개편에 나선다. 광주는 4월 "올 시즌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경기 F&B 서비스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 관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

리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팬들 사이에서는 F&B 시설 확충과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구단은 이를 반영해 전면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우선 광주월드컵경기장 동측 3층 광장에 고정형 '푸드부스'를 새롭게 설치한다.

푸드부스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판매할 예정이며, 시즌 및 경기 특성에 따라 메뉴를 유동적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기장 내 먹거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체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기존 기관형 매점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CU 편의점과 공식 계약을 체결해 실내 매장 형태의 편의점 시스템을 도입한다. 편의점은 서측, 동측, 북측 등 총 3개소에 설치된다. /박희중기자

임성재, 부상 떨치고 시즌 첫 출격

PGA 특급 대회 아널드 파머 내일 개막

임성재가 2026시즌 들어 처음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출격한다. 임성재는 6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골프 앤드 로지(파72·7천466야드)에서 열리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총상금 2천만달러)에 출전한다. 임성재의 공식 대회 출전은 지난해 10월 말

천안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D P월드투어 공동 주관의 제네시스 챔피언십 이후 4개월여 만이며, PGA 투어 대회는 지난해 10월12일 끝난 베이커먼트 클래식 이후 거의 5개월 만이다. 애초 임성재는 지난날 중순 열린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통한 복귀를 목표로 치료와 재활을 진행해왔으나 컨디션을 고려해 이번 대회부터 나서게 됐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영암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인터내셔널 키즈 챔피언십(KIKC)' 대회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영암, '주짓수 메카'로 뜬다

지난 1월 '제1회 코리아 인터내셔널 키즈 챔피언십' 이어 5월 2회 대회 개최

국내 주짓수 사설대회 가운데 최대 규모 국제대회가 지난 1월에 이어 영암에서 두 번째로 열린다. 전남도체육회는 4일 "제2회 코리아 인터내셔널 키즈 챔피언십(KIKC)이 영암군체육회와 KIKC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오는 5월23일 영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황건울 전남주짓수협회장(영암GY주짓수 대표)의 '고향 사랑'의 결실로 지난 1월31일 영암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인터내셔널 키즈 챔피언십(KIKC)'의 성공 개최를 잇는 이번 대회에는 5세 유소년부터 성인 마스터부까지 2천여명이 참가해 국제대항전과 콜백매치 일반부 경기로 진행된다. 특히 '슈퍼매치'로 불리는 국제대항전에는 주짓수 본고장인 브라질과 일본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국, 중국 등 8개국 정상급 유망주들이 대거 참여, 국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차별화 요소는 '특별무대'다.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에서 볼 수 있는 옥타곤(철조망 포함) 매트를 도입해 국제전과 콜백매치를 진행한다. 옥타곤 무대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박진감 넘치는 해설과 함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현장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외는 별도로 왕초보전과 일반 경기를 위한 총 8개의 매트를 별도로 설치해 참가자 중심의 운영을 강화한다. 황건울 전남주짓수협회장은 "주짓수 꿈나무들에게 더 큰 경험과 국제 무대를 선물하기 위해 두 번째 국제대회를 준비했다"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통해 선수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국내 주짓수 저변 확대와 전남 주짓수의 위상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